

2016. 11. 28. ~ 12. 04.

주간

113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양념·엽근채소 관측
- 쌀 관측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신안군수, 농·수·특산물 중국 홍보 직접 발로 뛰다
- 미니파프리카 라온 일본 첫 수출 길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우리 쌀 소비 촉진과 판매 확대 방안 모색
- 겨울철 농업기계 점검 보관관리 철저

정책동향

- 20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 정부로 이관
- 배추 정부비축 물량 6천 5백톤 추가로 풀다

사업신청 및 홍보

- 내년에 파종할 벼 보급증 신청하세요
- 12월 7일 대설(大雪), 한 겨울을 알리는 날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조금 많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예보 : 시설작물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역병, 노균병, 총채벌레류, 진딧물, 응애류, 가루이류,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등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양념채소 (건고추·깎마늘·양파·대파) 관측
- ▶ 엽근채소 (배추·무·당근·양배추·감자) 관측
- ▶ 쌀 관측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4

- ▶ 나주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농협중앙회가 운영
- ▶ 곡성군, AI 특별방역 총력 대응, 소독시설 3개소로 확대
- ▶ 고흥군, 우수 농수특산물 품평회 열고 판로 개척 나서
- ▶ 보성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 ▶ 장성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11,001톤 매입
- ▶ 진도군, 진도대파 홍보·유통 확대 추진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0

- ▶ 신안군수, 농·수·특산물 중국 홍보 직접 발로 뛰다
- ▶ 미니파프리카 '라운' 일본 첫 수출 길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2

- ▶ 재래호박 대목을 이용한 미니단호박 접목묘의 수량증대 효과
- ▶ 국외 도입 아스파라거스 품종의 주요 특성
- ▶ 황금 GAP 지침설정을 위한 건조 및 저장방법 구명
- ▶ 목이 봉지재배 생력적 타공기술
- ▶ 신선 및 냉동 다진마늘 상품 제조방법
- ▶ 시설애호박 드라이아이스 이용 탄산가스 시비 효과
- ▶ 우리 쌀 소비 촉진과 판매 확대 방안 모색
- ▶ 겨울철 농업기계 점검 보관관리 철저
- ▶ 소비자 맞춤형 참다래 품종 개발로 시장경쟁력 갖추다
- ▶ 스마트팜 도입하니 수량·품질 높아져... 소득 늘어
- ▶ 최근 비래 멸구류 약제저항성 갈수록 높아져
- ▶ 저울 없이 한우 체중 계산하는 줄자 나왔다

❁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37

- ▶ 농산물유통전문가 (출처 : 농촌진흥청)

❁ 정책 동향 39

- ▶ 2017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관요원 교육 실시
- ▶ '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 정부로 이관
- ▶ 배추 정부비축 물량 6천 5백톤 추가로 푼다

❁ 해외 농업정보 42

- ▶ 수입의존도 높은 싱가포르 과일시장
- ▶ 뉴질랜드, 세계 유제품 수출량 아시아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증가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5

- ▶ 내년에 파종할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총 6종
- ▶ 12월 7일 대설(大雪) 한 겨울을 알리는 날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9	3.7	0.3	7.8	8.4	-0.7	0.1	-0.3	0.5	1.1
12. 08.(목)	4.0	4.3	-0.3	8.0	9.2	-1.2	0.0	0.2	-0.2	1.7
12. 09.(금)	5.5	4.3	1.2	8.0	9.1	-1.1	3.0	0.3	2.7	1.3
12. 10.(토)	3.0	4.1	-1.1	7.0	9.0	-2.0	-1.0	0.0	-1.0	1.2
12. 11.(일)	2.5	3.9	-1.4	7.0	8.7	-1.7	-2.0	-0.1	-1.9	1.1
12. 12.(월)	4.5	3.6	0.9	9.0	8.3	0.7	0.0	-0.3	0.3	1.1
12. 13.(화)	4.5	3.2	1.3	8.0	7.9	0.1	1.0	-0.7	1.7	0.9
12. 14.(수)	4.0	3.0	1.0	8.0	7.7	0.3	0.0	-1.0	1.0	0.8
12. 15.(목)	3.5	2.8	0.7	7.0	7.5	-0.5	0.0	-1.1	1.1	0.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8	4.9	-0.1	8.4	9.3	-1.0	1.1	1.3	-0.2	1.0
12. 08.(목)	5.0	5.5	-0.5	9.0	10.2	-1.2	1.0	1.8	-0.8	1.5
12. 09.(금)	6.0	5.5	0.5	8.0	10.1	-2.1	4.0	1.8	2.2	1.0
12. 10.(토)	4.0	5.3	-1.3	7.0	9.9	-2.9	1.0	1.6	-0.6	0.9
12. 11.(일)	3.0	5.1	-2.1	8.0	9.6	-1.6	-2.0	1.5	-3.5	0.9
12. 12.(월)	5.5	4.8	0.7	10.0	9.1	0.9	1.0	1.3	-0.3	1.0
12. 13.(화)	5.0	4.5	0.5	8.0	8.8	-0.8	2.0	1.0	1.0	0.9
12. 14.(수)	5.0	4.3	0.7	9.0	8.6	0.4	1.0	0.8	0.2	0.9
12. 15.(목)	4.5	4.1	0.4	8.0	8.4	-0.4	1.0	0.8	0.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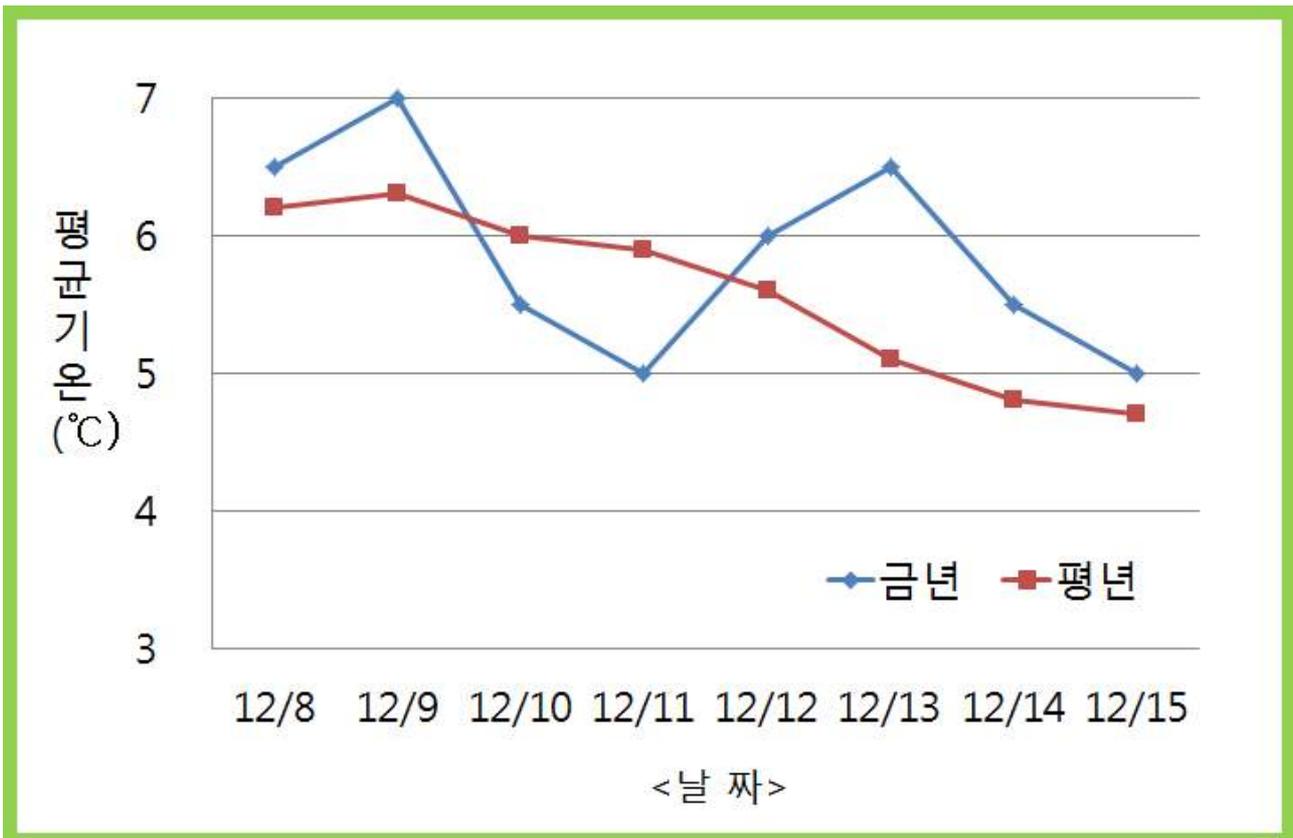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9	5.6	0.3	9.3	9.5	-0.2	2.5	2.4	0.1	0.6
12. 08.(목)	6.5	6.2	0.3	10.0	10.2	-0.2	3.0	3.0	0.0	1.0
12. 09.(금)	7.0	6.3	0.7	9.0	10.2	-1.2	5.0	3.1	1.9	0.5
12. 10.(토)	5.5	6.0	-0.5	9.0	10.0	-1.0	2.0	2.8	-0.8	0.5
12. 11.(일)	5.0	5.9	-0.9	9.0	9.8	-0.8	1.0	2.7	-1.7	0.7
12. 12.(월)	6.0	5.6	0.4	10.0	9.4	0.6	2.0	2.3	-0.3	0.7
12. 13.(화)	6.5	5.1	1.4	10.0	9.0	1.0	3.0	1.9	1.1	0.5
12. 14.(수)	5.5	4.8	0.7	9.0	8.6	0.4	2.0	1.6	0.4	0.6
12. 15.(목)	5.0	4.7	0.3	8.0	8.5	-0.5	2.0	1.5	0.5	0.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6. 12. 01. ~ 12. 31.)

농촌진흥청은 토마토·오이·딸기 등 시설재배 작물에 발생하는 잣빛곰팡이병, 균핵병, 노균병, 바이러스병, 총채벌레, 진딧물, 응애류 등의 병해충에 대해 예보를 발표하오니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보 : 시설작물 잣빛곰팡이병, 균핵병, 역병, 노균병 등

-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적어 병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적절한 보온과 환기를 실시하여 시설 내의 온·습도가 알맞게 유지 되도록 관리하고, 병에 걸린 잎과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예방적으로 적용약제 살포

□ 예보 : 시설작물 총채벌레류, 진딧물, 응애류, 가루이류 등

- 시설에 발생하는 해충은 연중 발생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적기 방제를 못하게 되면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발생초기에 철저히 방제

□ 예보 : 토마토·고추 등의 토마토황화잎말림병, 토마토반점위조병

- 토마토·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병원균을 매개하는 총채벌레, 담배가루이를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고 병에 걸린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여 2차 감염 예방

□ 예보 : 딸기세균모무늬병,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병(검역병해충)

- 병에 걸린 포기는 즉시 제거하고 병이 발생한 포장에서 증식용 모주 또는 삼수 채취 금지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양념채소 (건고추 · 깻마늘 · 양파 · 대파) 관측

- **가격전망** : 마늘 도매가격 지난달대비 높고, 건고추 마늘 양파는 약 보합세 전망
 - 건고추는 2016년산 생산량이 적으나, 이월재고량이 많아 지난달대비 낮은 5,700원/600g 전망
 - 깻마늘은 수입가격 상승과 국내산 마늘 수요 증가로 지난달보다 높은 7,500원/kg 전망
 - 양파는 2016년산 재고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으나, 지난달과 비슷한 1,000원/kg 전망
 - 대파는 겨울대파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으나, 지난달과 비슷한 2,300원/kg 전망

- **생산전망** :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 지난해대비 증가, 양파는 감소 전망
 - 건고추 2017년산 재배의향은 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9~12% 감소 전망
 - 마늘 2017년산 재배면적은 2016년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대비 7~11% 증가 전망
 - 양파 2017년산 재배면적은 2016년산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대비 4~8% 감소 전망
 - 대파 12~내년 2월 정식의향은 최근 대파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대비 3% 증가 전망

엽근채소 (배추 · 무 · 당근 · 양배추 · 감자) 관측

□ 가격전망 : 배추 가격은 11월 하순 대비 약보합세 전망

- 배추는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으나, 11월 하순보다 낮은 8,000원/10kg 내외 전망
- 무는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으나, 11월 하순대비 보합세인 18,000원/18kg 내외 전망
- 당근·양배추도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은 각각 77,000원/20kg, 17,000원/8kg 내외 전망
- 감자(수미)는 가을감자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 및 지난달보다 높은 33,000원/20kg 내외 전망

□ 2017년 봄작형 재배의향은 겨울작형 가격 강세로 증가

- 엽근채소 시설봄 재배의향은 겨울작형 가격 강세로 금년보다 15% 내외 증가, 감자는 3% 감소
- 엽근채소 노지봄 재배의향은 금년보다 2~15% 증가, 감자는 4% 감소
- 초기 재배의향이어서 미정인 농가가 많아, 향후 겨울작형 출하기 가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2017년 엽근채류 봄작형 재배의향면적 금년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배추	무	당근	양배추	감자
시설	18.1	12.1	13.8	15.4	-3
노지	15.3	1.8	5.2	8.2	-3.8
전체	16	3	10.8	9.6	-3.7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관측

- 올해 쌀 생산량 419만 7천톤, 수확기 시장격리물량 지난해보다 증가
 - 금년 벼 재배면적과 단수가 지난해대비 각각 2.6, 0.6% 감소함에 따라 2016년산 쌀 생산량은 지난해대비 3%(13만톤) 줄어든 419만 7천톤
 - 정부는 금년 생산량 중 신곡수요초과물량 전량을 연내 시장격리 한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잠정격리물량 25만톤 이외에 4만 9천톤을 추가 시장격리 하여, 수확기 시장격리물량은 지난해(20만톤)보다 9만 9천톤 많은 수준

- 2016년산 쌀 가격 계절진폭 발생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
 - 수확기 신곡 시장공급물량 감소 및 구곡재고 부담완화는 산지 쌀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나 벼 수발아로 인한 품위저하와 연이은 역계절 진폭 발생 등에 의한 산지유통업체 경영악화가 가격상승을 제한함에 따라 2016년산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 쌀 가격은 3만 2,500원/20kg내외 전망
 - 최근 식용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2017양곡연도 쌀 연간 시장공급가능 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2.3%)하여 연평균 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수확기 가격이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과도하게 하락하여 단경기 가격 상승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7양곡연도 쌀 가격은 계절진폭 발생 예상
 - 다만, 여전히 산지에서는 현 수급상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수급에 대한 인식이 향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계절진폭 발생 가능성 낮아질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2. 0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05)	1주일전 (11/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2,400	32,400	32,400	36,850	42,127	↓ 12.1	↓ 23.1
	콩(백태)	35kg	186,800	185,800	153,000	147,400	166,867	↑ 26.7	↑ 11.9
	고구마(밤)	10kg	25,200	24,800	25,300	22,200	22,053	↑ 13.5	↑ 14.3
	감자(수미)	20kg	32,200	30,800	27,000	25,600	25,040	↑ 25.8	↑ 28.6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1,020	1,040	660	465	490	↑ 119.4	↑ 108.2
	양배추	10kg	16,200	16,600	11,300	3,750	4,624	↑ 332.0	↑ 250.3
	오이(다다기계통)	10kg	31,667	24,667	32,333	54,250	33,481	↓ 41.6	↓ 5.4
	애호박	8kg	19,800	18,400	24,250	32,950	22,533	↓ 39.9	↓ 12.1
	토마토	10kg	38,200	30,000	29,900	18,250	24,813	↑ 109.3	↑ 54.0
	당근	20kg	73,600	73,600	56,300	25,250	24,270	↑ 191.5	↑ 203.3
	건고추(화건)	60kg	580,000	580,000	580,000	806,000	887,067	↓ 28.0	↓ 34.6
	풋고추	10kg	55,200	60,400	63,250	31,550	49,063	↑ 75.0	↑ 12.5
	마늘(깐마늘)	20kg	148,000	148,000	143,000	138,000	110,533	↑ 7.2	↑ 33.9
	양파	20kg	20,800	20,600	19,950	35,150	20,120	↓ 40.8	↑ 3.4
	대파	1kg	2,460	2,490	2,343	2,140	1,644	↑ 15.0	↑ 49.6
	파프리카	5kg	27,600	23,800	22,800	18,800	23,240	↑ 46.8	↑ 18.8
	멜론	8kg	26,600	26,600	28,700	26,500	26,151	↑ 0.4	↑ 1.7
	방울토마토	5kg	23,800	19,400	23,350	9,550	15,387	↑ 149.2	↑ 54.7
	수박	1개	16,200	15,800	12,550	14,150	11,247	↑ 14.5	↑ 44.0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7,200	37,800	37,800	36,400	43,640	↑ 2.2	↓ 14.8
	배(신고)	15kg	36,200	36,200	35,400	43,600	41,907	↓ 17.0	↓ 13.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05)	1주일전 (11/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600	509,600	513,600	534,000	542,667	↓ 2.7	↓ 4.3
	느타리버섯	2kg	15,200	13,800	15,600	11,650	11,640	↑ 30.5	↑ 30.6
	새송이버섯	2kg	8,200	8,200	9,000	8,400	8,307	↓ 2.4	↓ 1.3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02	7,853	8,072	7,804	6,531	-	↑ 19.5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39	1,869	1,921	1,920	1,838	↓ 4.2	↑ 0.1
	닭고기	1kg	5,609	5,320	5,842	5,105	5,538	↑ 9.9	↑ 1.3
	계란(특란)	30개	5,647	5,410	5,625	5,529	5,680	↑ 2.1	↓ 0.6
	우유	1리터	2,528	2,528	2,528	2,550	2,460	↓ 0.9	↑ 2.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2. 05.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698 천원	5,453 천원	5,788 천원	↑ 4.4	↓ 1.5
	거세	6,355 "	5,981 "	6,563 "	↑ 6.2	↓ 3.1
송아지 (6~7월)	암	2,591 "	2,551 "	2,537 "	↑ 1.5	↑ 2.1
	수	3,092 "	3,184 "	3,138 "	↓ 2.8	↓ 1.4
육우(600Kg)		3,004 "	2,950 "	3,422 "	↑ 1.8	↓ 12.2
젖소수송아지(7일령)		197 "	209 "	310 "	↓ 5.7	↓ 36.4
돼지(110kg)		327 "	341 "	362 "	↓ 4.1	↓ 9.6
육계(원/kg)		1,656 원	1,587 원	1,336 원	↑ 4.3	↑ 23.9
계란(원/특란10개)		1,280 "	1,253 "	1,112 "	↑ 2.1	↑ 15.1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418원/마리 (△63) * (5,658 - 2,332 + 3,092 = 6,418)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농협중앙회가 운영

- 나주를 친환경농산물의 체계적인 수집·분산 등 유통의 광역거점으로 육성 -

- 전남도와 나주시는 12월 1일 나주에 건립중인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주체로 농협경제지주(주)(대표이사 김태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11월 30일 나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심사평가에서 농협은 우리나라 대표 농업 공기업으로써 친환경물류센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는 점,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에 큰 비중(39%)을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인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공익 향상과 농촌에서의 사회적 역할,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경험 등에서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한 물류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서도 농협중앙회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학교급식, 생협 등과 생산자가 직거래 등으로 유통·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화된 산지유통 주체가 육성되지 못하고 일반농산물과 같이 판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번 농협의 참여로 농협 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전국 친환경 매장에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전남형 친환경학교급식시스템 구축, 서울시 공공급식 등 납품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나주시

■ 곡성군, AI 특별방역 총력 대응, 소독시설 3개소로 확대

- 11월 23일부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1개소 → 3개소 확대운영 -

- 최근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되고,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곡성군은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3개소로 확대운영하면서 AI 예방과 방역차단에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당초 1개소(삼기면 금반리) 운영하던 것을 3개소(삼기면 금반리·곡성읍 장선리·옥과면 무창리)로 확대하고 24시간 운영하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AI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있다. 방역초소를 통제하고 각종 상황전파와 함께 유사시 동원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
- 더불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활동 강화에 나섰다.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900kg을 긴급 공급하고 소독을 실시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소독방제차량을 동원해 철새 서식 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축산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관리에 들어갔으며, 수시로 AI 차단방역을 위한 상황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AI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인근 농장까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우수 농·수·특산물 품평회 열고 판로개척 나서

- 고흥군은 지난 1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국내 대표 유통회사 중 하나인 (주)이랜드리테일 관계자를 초청해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평회'를 가졌다.
- 이번 품평회는 박병중 군수와 오상훈 이랜드그룹 부사장을 비롯한 정자성 김스클럽 본부장 및 MD(상품기획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 고흥군에서는 고흥군수협, 엔자임팜, 해맑음팜을 포함한 46개 업체에 150여 개 품목이 참가해 MD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 군에 따르면, 이날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품목은 내년 1월 중에 김스클럽 강남점에서 1주일간 '고흥군 기획전'을 갖고 소비자 호응도가 높은 품목은 전국의 김스클럽 37개소에 입점·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군은 품평회에 전시를 마친 200만원 상당의 품목은 지역 복지 시설에 기부된다고 밝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 T/F팀 운영,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대설대비 제설자재 비축 등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겨울철 자연재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 지난 11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5일 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를 T/F 팀으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직원비상근무 계획 수립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유지 등 협업 기관의 협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또한 동절기 각종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설에 대비하여 친환경 제설재 95, 친환경 액상살포제 15, 모래 50톤의 결빙이 예상되는 지방도 등 취약 구간에 사전 비치하였으며 살포기, 굴삭기 등 제설 장비 30대를 확보하는 등 제설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아울러 대설·한파 등에 대한 군민행동요령을 군 홈페이지, 마을 행정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보성군

■ 장성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11,001톤 매입

- 산물벼 1,187톤, 포대벼 9,814톤 매입 -

- 장성군이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을 전년보다 10% 가량 증가한 11,001톤으로 확정하고 수매에 들어갔다.
- 군 관계자는 산물벼 1,187톤(29,671가마)과 포대벼 9,814톤(245,351가마) 등 총 11,001톤(275,022가마)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난 14일 산물벼 수매를 완료하고 현재 포대벼를 매입중이라고 밝혔다.
- 매입 가격(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 시가인 벼 40kg 당 △특등품 4만 6,480원 △1등품 4만 5,000원 △2등품 4만 3,000원 △3등품 3만 8,270원이며,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제 비용인 864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 이후 통계청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전국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한 가격을 토대로 우선지급금 보다 쌀값이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 지급액을 농업인으로부터 환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장성군은 지난 22일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새누리와 새일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군 관계자는 “올해 발생된 벼 수발아 피해 등으로 보급종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가에서 종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장성군

■ 진도군, 진도대파 홍보·유통 확대 추진

-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대파 홍보를 위해 (주)외식경영(대표 김현수)과 상호 발전,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진도군과 (주)외식경영은 이번 MOU를 통해 △진도대파 홍보 △유통 경로 확대 △대파를 이용한 메뉴 개발 등을 추진,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외식경영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파를 이용한 메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농가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파트너십 추진 등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축산물 등으로 협력관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 (주)외식경영은 외식전문지 ‘월간 외식경영’을 매월 발간하는 회사로 외식업계의 유행과 외식업에 유용한 식재료, 기자재 소개 등 외식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홍보하고 있다.
- 진도군은 1,714농가가 겨울대파를 1,120ha면적에 약 4,400톤을 생산,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진도 대파는 겨울에도 기온이 따뜻해 대파가 성장하고 수확 작업도 가능한데다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
-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진도대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음식에 다양하게 이용되어 진도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군민소득 1조원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출처 : 진도군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신안군수, 농·수·특산물 중국 홍보 직접 발로 뛰다

- 고길호 신안군수는 지난 11. 29.부터 12. 1.까지 4일간 중국 '산시성'과 '텐진시'를 방문 신안군 농·수·특산물을 직접 발로 뛰는 홍보에 나섰다.
- 지단달 11. 30.에는 세계 산서상인의 대도시이자 해산물 전문 도매 시장이 있는 산시성을 방문하여 신안군의 '김' 과 '천일염' 등 각종 특산물을 소개해 중국 관계자들 앞에서 큰 호응을 받았으며,
- 12.1.에는 텐진시의 최대 과일·채소 종합도매시장인 홍치 농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주요 농산물을 소개해 신안군의 풍부한 농산물 자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다.
- 특히,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상호우호 협력을 목적으로 양 지자체간 실무자협의회를 체결하기로 확정하여 양 지자체가 믿고 직접 교류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 고길호 신안군수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안군의 주요 특산물을 국제적으로 선의의 경쟁으로 반드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 향후 주민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 출처 : 신안군



■ 미니파프리카 ‘라운’ 일본 첫 수출 길

- 경남농업기술원이 2015년 육성해 품종 보호출원한 신품종 미니 파프리카 ‘라운’이 처음으로 일본시장에 수출돼 유망품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경남농기원에 따르면 최근 라운 미니파프리카 2.1톤(한화 1,260만원 상당)이 경북통상을 통해 일본 수입바이어 인팜에 공급됐다. 라운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한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연구과제를 통해 경남농기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미니파프리카 품종이다. 현재 밀양 1.1, 합천 2.3ha에 라운 재배단지가 조성됐으며,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재배작형을 도입·운영해 물량확보도 원활한 편이다.
-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수입산 미니파프리카 품종은 과중이 30g 이하로 작고 수량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때문에 판매가격대가 높아 소비가 쉽게 증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라운 미니파프리카는 과중이 50g이상이며, 수량성이 좋고 과육이 두껍다. 특히 높은 수량성 덕분에 기존의 수입품종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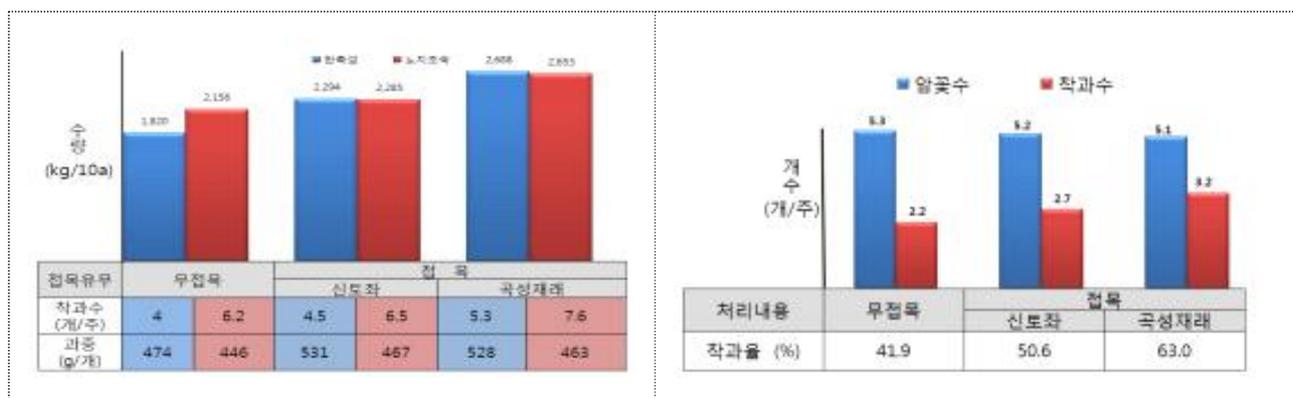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재래호박 대목을 이용한 미니단호박 접목묘의 수량증대 효과

개발기술 내용

○ 미니단호박 접목묘(곡성재래) 이용 시 세력이 우수 흰가루병 저항성이 높으며 안정된 착과와 과중 증가로 수량이 증가함

- 반촉성 재배 수량 2,688kg (무접목 1,820), 노지 조숙 재배 2,653kg(2,156)
- 억제재배 시 착과량 증진 효과 확인 : 2.2 → 3.2개/주(착과율 63%)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선발 대목 이용 접목묘 이용효과 현장실증 및 교육자료 활용

기술개발 파급효과

- 착과율 향상, 과중 증가에 따른 수량 증수 : 반촉성 47, 노지조숙 23, 억제재배 착과수 36, 착과율 21.1%
- 억제재배 안정생산을 통한 소득증대(10a) : 30% 증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장미향

■ 국외 도입 아스파라거스 품종의 주요 특성

□ 개발기술 내용

○ 국외 도입 아스파라거스 품종의 주요 생육 및 수량특성

품종명	생육 및 병해충				약경특성				수량특성 [↓]			
	약경 표피	입경 초장 (cm)	줄 기 마름병	진딧물	약경 직경 (mm)	약경수 (개/주)	약경중 (g/주)	평균 약경중 (g/개)	수확 횟수 (회)	약경수 (개/10a)	약경중 (kg/10a)	지수
유시-800	녹색	193	+	+	10.0	40.8	782	19.2	56	50,130	1,039 b	100
슈퍼웰컴	녹색	196	+	+	10.7	45.5	913	20.1	58	57,167	1,223 a	118
나이트	녹색	197	+	+	9.5	36.2	650	18.0	57	44,571	860 c	83
슈프림	녹색	195	+	-	10.0	43.3	782	18.1	59	53,494	1,033 b	99
탐라웰컴	녹색	200	+	+	11.0	48.1	1,010	21.0	63	59,140	1,346 a	130
자이언트	녹색	194	+	+	10.1	38.5	724	18.8	59	48,961	962bc	93
아틀란틱	녹색	188	+	+	11.0	36.3	727	20.0	58	44,331	957bc	92
그린타워	녹색	196	+	+	11.7	39.4	917	23.3	60	51,578	1,247 a	120
퍼플패션	자색	206	-	-	12.3	29.5	694	23.5	55	38,467	941bc	91

※ 병해충 발생정도 : - (없음 0), + : 소(1), ++ : 중(3), +++ : 다량(5)

↓(상품약경) : 약경의 무게가 8g이상으로 곡과 및 병해충에 이병되지 않은 것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아스파라거스 장기재배 농가에 영농활용 기술로 보급
- 아열대채소 연구개발 신기술 재배 지침서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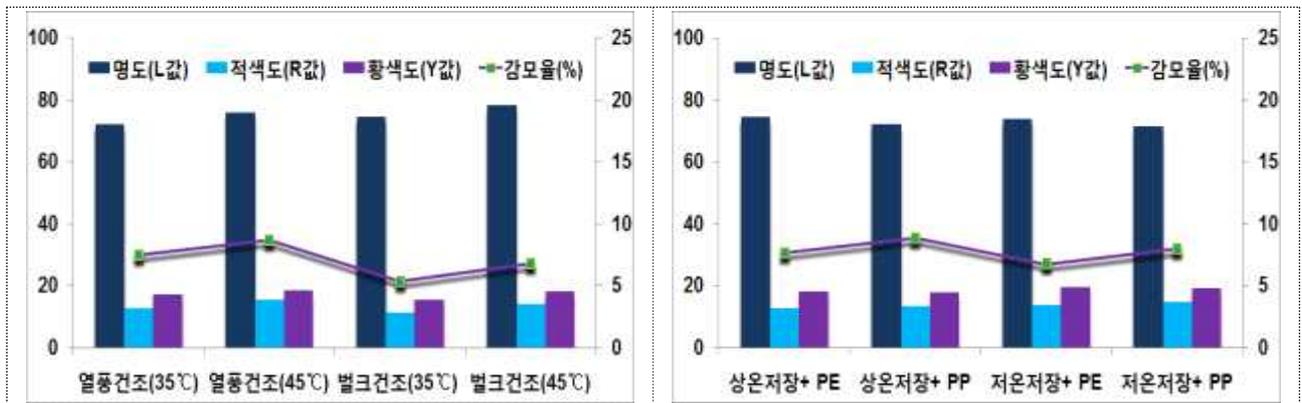
- 농가들에게 품종특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생산 및 소득향상에 기여
- 남부지방 지역특화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기반 구축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정효진, 손동모

■ 황금 GAP 지침설정을 위한 건조 및 저장방법 구명

□ 개발기술 내용

- 적정 건조 방법은 가스벌크 건조기의 1차(세척 후)+2차(절단 후) 건조 시 35℃ 온도가 손실율이 적었고 색도가 가장 낮았음
- 포장 재료별 저장조건은 PP 포장, 상온저장보다 PE 포장, 저온저장 처리가 장기간 안정된 색도를 유지하였음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황금뿌리의 건조는 가스벌크건조기(1·2차 35℃), PE포장 저온저장처리가 유리함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수확 후 관리 기술 영농 교육 및 홍보 강화
- 생약재 가공시설을 갖춘 농가 작목반 및 생약 협동조합업체에 활용함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적정한 건조방법 및 저장조건 등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로 고품질 생약재 대체 자급생산 기반 구축, 소득증대 효과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 목이 봉지재배 생력적 타공기술

□ 개발기술 내용

- 흑목이 발이 및 생육 적온 $20\pm 1^{\circ}\text{C}$ 가 적합
 - 초발이 소요일수는 20°C 에서 11일로 26°C 보다 1.5일 빠름
 - 수량은 20°C 에서 204kg/봉지로 26°C (183kg/봉지)보다 11% 높음
- 털목이 발이 및 생육 적온 $26\pm 1^{\circ}\text{C}$ 가 적합
 - 수량은 26°C 에서 242kg/봉지로 20°C (205kg) 보다 18% 더 높음



【 20°C 에서 털목이(左), 흑목이(右) 자실체】



【 26°C 에서 털목이(左), 흑목이(右) 자실체】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목이류 봉지재배(0.9kg)시 종균배양 후 배양실 온도를 흑목이는 $20\pm 1^{\circ}\text{C}$, 털목이는 $26\pm 1^{\circ}\text{C}$ 에서 발이 및 생육시키면 발이기간 단축 및 수량이 증수됨
- 농가실증시험 및 종균배양소를 통한 보급체계 구축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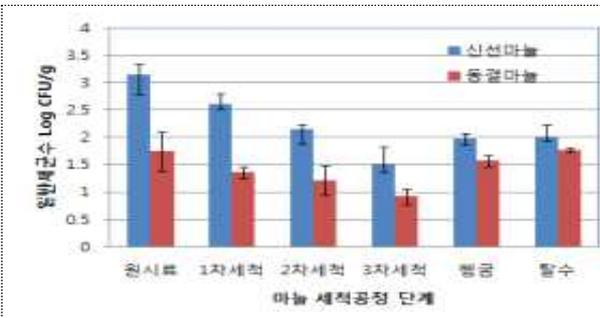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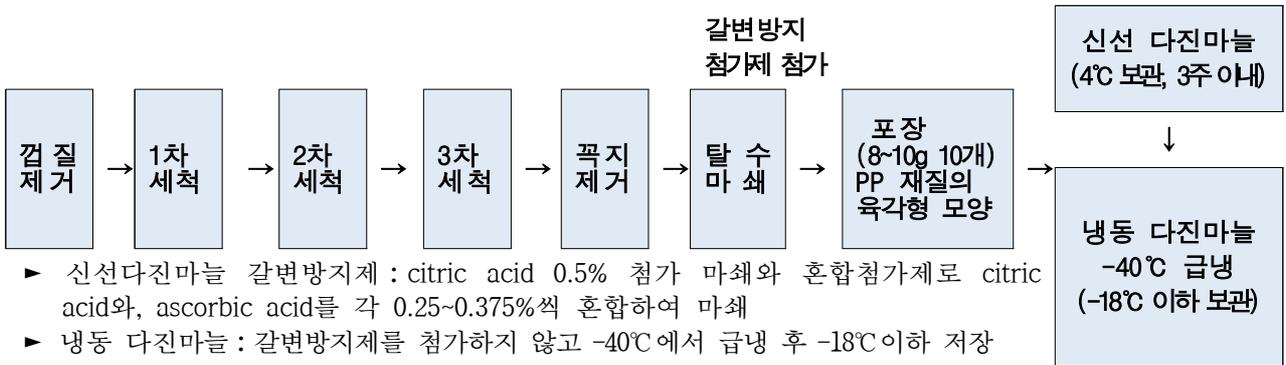
- 목이 국산화 및 봉지재배 증수 효과 : 7,020kg/년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이숙재, 김길자

■ 신선 및 냉동 다진마늘 상품 제조방법

□ 개발기술 내용

○ 신선 및 냉동 다진마늘 상품 제조방법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도내新安·해남 등 주 생산지 가공업체 기술지원으로 상품화 추진
- 전남 친환경재배(무농약, 유기농) 마늘로 차별화된 냉동편의 제품화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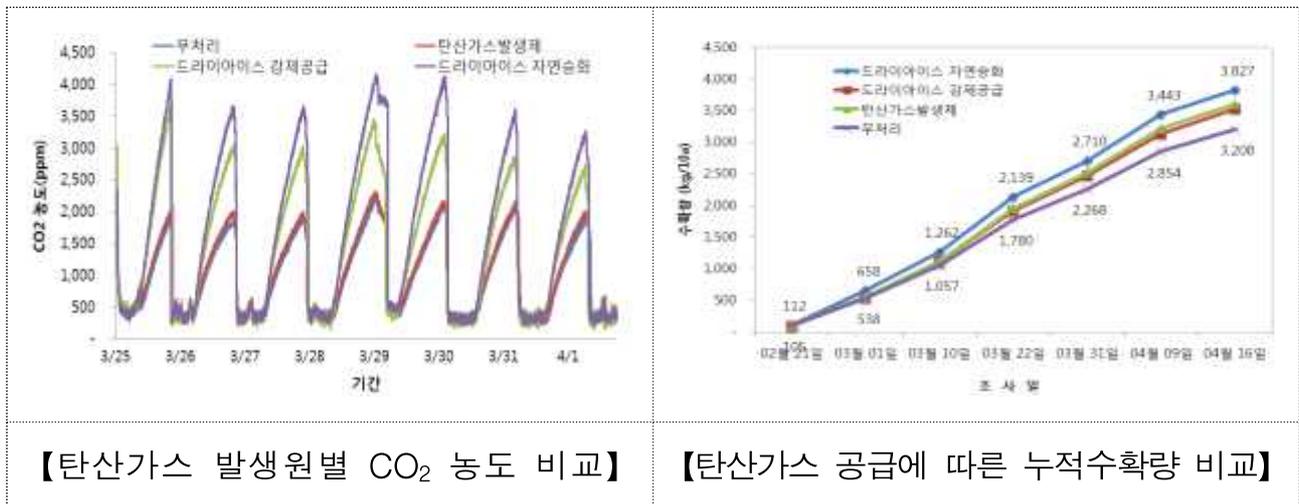
- 소비자 및 생산자가 요구하는 냉동편의 다진마늘 제품화로 소비촉진 : 10% 이상
- 부가가치화 마늘 가공제품화로 소비촉진 및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오봉윤

■ 시설애호박 드라이아이스 이용 탄산가스 시비 효과

□ 개발기술 내용

- 드라이아이스(180kg/1,000m²)를 시설 내 일정 간격으로 배치
 - 사용기간 : 11월부터 다음해 수확종료 시 까지
 - 교체주기 : 7~10일 간격으로 하되 날씨에 따라 조절함



【탄산가스 발생원별 CO₂ 농도 비교】

【탄산가스 공급에 따른 누적수확량 비교】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애호박을 포함한 과채류 재배농가 현장활용 교육자료로 활용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드라이아이스 정책적 지원하도록 협조요청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드라이아이스 이용 탄산시비에 의한 수확량 증가 : 19%
 - 10a 당 수확량 2,193kg 증가에 의한 2,631천원 소득 증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조경철

■ 우리 쌀 소비 촉진과 판매 확대 방안 모색

- 「우리 쌀 산업의 새로운 도약 방안」 토론회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한국쌀산업진흥회(회장 최해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이영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리 쌀 산업의 새로운 도약 방안' 토론회가 오는 12월 8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다.
- 계속되는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올해도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쌀 소비촉진 및 판매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쌀 생산, 유통 및 가공,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이번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김한용 교수의 '우리 쌀 산업 정책 및 방향'을 시작으로 국립식량과학원 고재권 박사의 '우리 쌀의 대외 수출 현황과 개선 방향', 충남대학교 조재성 교수의 '우리의 쌀 생산 자립화를 위한 쌀 자조금 도입 방안' 및 한국식품연구원 금준석 박사의 '우리 쌀을 이용한 새로운 가공식품의 현황과 전망' 등 4건이 발표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박흥규 식량작물연구소장은 '우리 도 쌀 재배 농업인과 관련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남의 쌀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겨울철 농업기계 점검 보관관리 철저

- 겨울철 (트랙터·경운기·관리기 등) 장기보관 관리 철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겨울철 농업기계의 수명연장과 고장 예방을 위하여 영농작업을 마친 농기계는 깨끗이 청소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한 다음 눈·비를 맞지 않는 장소에 보관, 관리요령에 따라 잘 보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업기계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기계 보관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벼 수확과 보리갈이, 조사료 수확 후 고가의 농기계에 대한 사후 관리 인식이 낮아 관리 소홀에 따른 내구연한 단축 등 낭비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농기계에 대한 점검과 보관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겨울철 기종별 농업기계 보관 및 점검 사항

○ 트랙터

- 작업기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나무판 등을 깔고 그 위에 보관, 웨이트는 떼어 놓고, 클러치 하우스 아래 배수 플러그를 풀어 물을 뺀다.
- 2~3개월 이상 장기보관 시 리프트 로드를 분리하고 리프트 암을 최고 위치로 올려놓는다.

○ 콤바인

- 탈곡부, 곡물탱크 내부의 남은 곡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곡물이 남아 있으면 쥐가 들어와 배선을 갉아 먹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예취클러치레버, 탈곡클러치레버 등 각 레버는 '끊김' 위치로 한다. 분초기 보호판을 부착하고 예취부는 내려놓는다.

○ 이양기

- 이양부는 내려서 보관하고 양암 스프링이 풀려있는 상태로 보관한다. 식부침 끝부분에도 그리스를 발라둔다.

○ 경운기

- 크랭크케이스 오일을 점검하여 필요시 교환한다. 시동핸들로 엔진을 회전시켜 압축상태(상사점)로 보관한다. 압축상태로 두면 밸브가 닫혀 실린더 내부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관리기

- 받침대를 세워 수평으로 보관한다. 시동로프를 당겨 크랭크축이 압축이 걸리는 지점에서 보관한다.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김창욱 과장은 농업기계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농규모에 맞는 적절한 기종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농작업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에 농업기계를 잘 보관하여 기계수명 연장과 기계부대비 절감 및 고장발생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소비자 맞춤형 참다래 품종 개발로 시장경쟁력 갖추다

- 노랑·초록·빨강 과육색 다양해... 국산 품종 보급률 21.7% 달성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국산 참다래 품종을 개발해 품질경쟁력을 갖추가고 있다고 밝혔다.
- 참다래는 비타민C와 변비 해소효과 등 건강기능성 과일로 주목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과실이다.
-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에 도입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 1,300ha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품종도 다양해져 지난해 기준 녹색 과육 65.9, 노란색 과육 28.8, 기타 5.3%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참다래 육종사업을 시작해 2015년까지 과육 색이 노란 골드 10, 녹색 7(미니품종 포함), 빨간색 1, 수분수 3품종 등 총 21품종을 육성했다.

※ 노랑·초록·빨강 과육색을 가진 국산 참다래 품종



▲ 골드원(노랑)

▲ 감록(녹색)

▲ 레드비타(빨강)

- 국내 자급률 향상에 큰 공헌을 한 품종은 국산 골드키위 1호 ‘제시 골드(2002년 개발)’와 ‘한라골드(2007년 개발)’이다. 그 후 2세대 골드키위라 불리는 ‘골드원(2011년 육성)’ 품종이 있다. 기존 골드 품종에 비해 30g 정도 더 크며, 측꽃 숙기 노력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노동력 절감형 품종이다. 올해 전남 보성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다.

- 녹색 과육의 대표주자는 ‘감록(2013년 육성)’ 품종이다. 녹색 참다래는 새콤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감록’ 품종은 당도가 14~18°Brix로 높으며 신맛이 적다. 내년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 과육 중심부가 빨간 품종은 ‘레드비타(2012년 육성)’이다. 보통 참다래에는 30~80mg(100g기준)의 비타민C가 들어 있는데 ‘레드비타’에는 140mg이 함유돼 있다. 1개만 먹어도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섭취량(100mg)에 충분하다. 내년에 농가보급을 앞둔 품종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털이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품종도 있다. ‘스키니그린(2007년 육성)’ 품종으로,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다래를 개량해 만들었다. 무게는 15~25g으로 야생다래보다 크며 당도는 14~20°Brix 정도로 높은 편이다. 추위에도 비교적 강해 기후적 제약이 있는 내륙지역에서도 특화할 수 있는 품종이다.
- 이 외에도 수입 꽃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수분수 품종도 개발했는데, 꽃가루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 ‘보화’, 기존 수분수에 비해 5일 이상 일찍 꽃이 피는 ‘델리움’ 품종 등이 있다.
- 다양한 국산 품종을 개발해 농가보급에 노력한 결과, 국산 참다래 품종 보급률은 2006년 0%에서 2015년 21.7%로 짧은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났다. 2020년 보급률 24.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우수한 참다래 품종의 농가보급을 넓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과 동남아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스마트팜 도입하니 수량·품질 높아져... 소득 늘어

- 농촌진흥청, 전국 우수 스마트팜 시설원에 90농가 대상 조사결과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스마트팜을 도입한 시설원에 농가들이 수량과 품질이 높아져 농가소득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토마토·딸기·참외를 재배하는 전국 스마트팜 농가 중 우수한 90농가(각 품목별 30농가)를 대상으로 조수입, 단수, 경영비, 소득 등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 이번 조사는 스마트팜이 편리성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우수농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적정 생육관리 기술을 다른 농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각 품목별 경영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토마토 : 토마토재배 스마트팜 농가는 일반농가 대비 3.3㎡당 수량이 94kg으로 일반농가 65kg에 비해 44.6% 많았으며, 소득도 10a당 15,383천원으로 일반농가 12,790천원보다 20.3% 높게 나타났다.
 - 딸기 : 딸기재배 스마트팜 농가는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해 특품 생산 비율이 높아져 품질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판매가격이 kg당 2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은 도입 전 11,838천원에서 14,386천원으로 2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딸기는 봄철(3월~5월) 외부기온 상승으로 과육이 쉽게 물러져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의 경우 근권부(뿌리 주변 부분) 온도와 양수분 자동제어 등 최적 생육관리로 인해 과육이 단단해져 바이어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 참외 : 참외재배 스마트팜 농가는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해 수량은 9.6, 소득은 15.3% 늘었다. 참외도 품질이 높아져 판매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시설 내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과거에는 천창이나 측창을 여닫거나, 난방을 조절하는 등 온실 내 환경을 단편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스마트팜에서는 일사량, 온도, 습도, CO2 농도 등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한편, 스마트팜 우수농가는 국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과 환경제어 프로그램 설정·활용기술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응해 농촌진흥청은 직제개편을 통해 11월부터 '농업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설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 또한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대상 농가를 300농가로 늘려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박정승 기획조정관은 “환경과 생육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경영성과 분석과 데이터 등을 토대로 컨설팅은 물론 최적의 생육관리 S/W를 개발해 보급하겠다.” 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최근 비래 멸구류 약제저항성 갈수록 높아져

- 지속적 모니터링 중요성 강조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벼농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인 멸구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주요 방제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 등 대다수의 멸구류 해충은 국내에서 월동을 하지 못하고 해마다 6~7월 사이에 중국에서 날아온다. 중국에서는 매년 멸구류 방제를 위해 농약의 생산 및 사용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년 전부터 약제저항성의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 국립식량과학원은 최근 날아온 벼멸구를 채집해 약제반응을 조사한 결과,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등에서 약제저항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 2015년 중국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벼멸구의 약제저항성은 이미다클로프리드(286~2,030배), 뷰프로페진(147~1,200배), 티아메톡삼(25~159배), 클로티아니딘(6~33배) 등에서 크게 높아졌으며, 저항성도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벼멸구 약제저항성 조사결과는 우리와 일치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흰등멸구와 애멸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멸구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 내 비래 해충의 밀도, 약제저항성 발달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예찰시스템을 활용해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가에 신속·정확하게 적정방제시기와 약제정보 등을 통보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저울 없이 한우 체중 계산하는 줄자 나왔다

- 소 가슴둘레로 무게 산정에 도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저울(우형기)없이 소의 체중을 잴 수 있는 '한우 체중 산정용 줄자'를 개발했다.
- 이번에 개발한 '한우 체중 산정용 줄자'는 소의 가슴둘레로 회귀식을 산출해 간편하게 체중을 산정할 수 있다.
- 소의 가슴둘레(흉위)는 체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줄자로 한우 암소 1,530마리를 6개월령까지, 수소는 1,280마리를 36개월령까지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간이 체중 산정용 줄자는 암소와 수소에 따라 가슴둘레와 이에 따른 체중이 표시돼 있어 간편하게 체중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줄자 하나의 양면에 암소와 수소의 가슴둘레 수치(cm)에 따라 체중값이 산출되도록 표시했다. 체중 측정값 범위는 암소는 70~730, 수소는 120~1,080kg까지 알 수 있다.
- 사용방법은 사람의 가슴둘레를 재듯이 한우 앞다리 쪽 가슴의 둘레를 줄자로 잰 뒤, 길이(cm)에 표시된 체중 값을 확인하면 된다.
- 그간 한우사육 농가에서 소의 체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형기를 보유해야 하고 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유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용 부담과 운용의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한우 월령에 따른 표준체중'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체 간 발육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모든 소에 적용하기 어렵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을 특허출원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 농산물유통전문가

□ 어떤 일을 하나요?

- 농산물유통전문가는 농업인이 수확한 농산물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저장·수송·구매·판매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 농산물유통전문가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의 경매사, 중·도매인, 농협의 유통전문 마케터,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바이어, 전자상거래 전문가 등 매우 다양하다.

□ 관련 산업현황과 전망은?

-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산업 규모는 유통비용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농산물유통비용은 손실률이 높고 유통단계가 많아 채소류 70, 과일류 50, 식량작물 20~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14년 기준 전체 농산물의 평균 유통비용은 44.8%로 유통단계의 효율화와 전문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통비용율(%)	42.3%	41.8%	43.9%	45.0%	44.8%
농림생산액(십억 원)	43,523.3	43,214.1	46,357.1	46,648.0	47,292.2
유통비용액(십억 원)	18,410.4	18,063.5	20,350.8	20,991.6	21,186.9

자료 : aT유통공사 유통실태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생산액 통계자료, 각년도)

□ 관련 기관 및 학교는?

- 농산물유통은 농업경제학과에서 주로 배울 수 있으며 최근에는 농업경제학과의 명칭이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업자원경제학과, 산업응용경제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학전공, 산업응용경제학 등
- 교육통계서비스의 '2014년 학과(전공) 분류자료집'의 학과 분류를 살펴보면 3개 소분류 11개 학과가 농산물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계열	학 과 명
경제학	농업경제학과(생명산업)
	산업응용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생명산업)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학전공
농업학	사료생산공학 · 축산가공학 · 농업자원경제학과군
	사료생산공학 · 축산식품과학 · 농업자원경제학과군
자원학	농업자원경제학과
	동물영양자원공학 · 축산가공학 · 농업자원경제학과군
	식품자원경제학과
	식품자원경제학전공
	동물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자료 : 2014년 학과 분류자료집. 교육통계서비스

* 출처 : 농촌진흥청

9. 정책 동향

◆ 2017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관요원 교육 실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7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관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 교관요원 교육은 영농설계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해 해마다 1월과 2월에 시·군에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나설 교관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은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친환경 저비용·고소득 농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에 나서게 된다.
- 이번 교육은 식량작물, 채소화훼, 과수특작, 축산, 6차산업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주요작물 생산비 절감기술, 최신 연구동향 등 작물생산 분야 교육과 농산물 마케팅, 가공·유통 등 농업경영 분야 교육, 또한 지난해 영농분야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교육으로 추진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창욱 농업교육과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단순한 작물 재배기술 교육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분야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새로운 농정시책, ‘스마트팜’ 등 최첨단농업기술 그리고 다양한 성공사례 소개 등을 통해 새해영농을 설계하는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 정부로 이관

- 11월 30일(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에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보관 중인 '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22만톤 전량을 내년 1월부터 정부 양곡 창고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매년 농가 편의제고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중 일정 물량을 RPC 등을 통해 산물벼로 매입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산물벼 매입에 참여한 RPC 등의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를 위해 인수 희망 물량에 대해 해당 RPC에 판매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조치는 RPC 매입여력을 확대하여 시장격리의 효과를 높여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 기존에는 산물벼 정부이관을 4~6월쯤 실시하였으나, '16년산 벼의 경우에는 시장격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17년 1월로 앞당겨서 실시할 예정이며,
- 이관 물량 역시 과거에는 RPC 인수 희망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만 정부 이관을 실시하였으나, '16년산 벼는 RPC 매입여력 확대를 위해 전량(8.22만톤)을 이관키로 하였다.
- 한편, 농식품부는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배추 정부비축 물량 6천 5백톤 추가로 푼다

□ '16. 11. 30. 기준, 김장 관련 정보

- (김장동향) 김장은 약 64% 진행되었으며, 이번 주 수도권 김장은 마무리 되고, 12월 상순까지 90% 이상 진행될 전망

□ 알뜰 장보기 정보

- (수급조절 물량 직공급) 배추 등 정부 수급조절 물량을 도매시장 공급 중심의 과거와 달리 대형마트 등 소비지에 저렴한 가격에 직공급
 - 소비자 판매가격 포기당 2천원 내외로 공급(11월 하순 소매가격 3,700원)
- (직거래 장터) 12월 중순까지 농협 직거래 장터 100여개 운영
 - 운영 장소, 기간, 판매품목 등에 관한 정보는 온·오프라인 통해 제공
- (할인판매) 전국 하나로마트 및 농·축협 계통 판매장 70개소에서 주요 김장채소 할인판매 추진(3차 : 12. 1.~11.)

□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 참여기관 협조 및 농식품부 총괄하에 김장관련 정보 수집·전파
 - 매주 목요일 김장 관련 정보 배포(보도자료를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
- 수급안정 물량(확보물량 15,500톤) 잔량 6,500톤은 가능한 12월 상순까지 도매시장 소비지 등에 집중 공급하고, 한파 등 기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 기술지도 강화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0. 해외 농업정보

◆ 수입의존도 높은 싱가포르 과일시장

- 싱가포르 식약청(AVA)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현지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90%가 수입산일 정도로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이에 가공식품부터 수산물, 농식품 등 다채로운 식품이 싱가포르에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국도 미국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다양하다.
- 우리 농식품 역시 싱가포르에 수출 중인데, 최근 케이팝(K-Pop)에 이어 런닝맨, 별에서 온 그대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이 속속 진출 하면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목할 만한 점은 딸기와 사과·배를 비롯한 신선과실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국제기업청(IE Singapore)이 최근 발표한 싱가포르 신선과일 수입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신선과일 수출실적이 지난 2013년 459만 8,000 싱가포르 달러에서 2014년 522만 8,000, 지난해 561만 1,000 싱가포르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는 과일 수입국 상위 10개국에도 진입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 전문가들은 우리 신선과실의 대싱가포르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기를 잘 조절하는 수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현재 딸기를 필두로 배와 사과·포도·복숭아 등이 한류 인기와 함께 높은 안전성으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진출 시기에 대한 전략적인 수출 마케팅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 이는 싱가포르 과일시장이 다른 식품에 비해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국의 계절 및 수확시기에 따라 물량 등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현재 대부분의 우리 수출업체들은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업체가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의 수출 시기를 파악, 겹치지 않게 싱가포르 수출을 추진한다면, 우리 농식품의 강점 홍보는 물론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싱가포르 과일시장이 경쟁이 평균적으로 과열되는 시기는 포도의 경우 10~3월, 복숭아는 6~9월, 딸기는 11~3월까지다.
- 뿐만 아니라 현지 고소득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고급 슈퍼마켓 및 백화점과 연계한 판촉행사 등을 진행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뉴질랜드, 세계 유제품 수출량 아시아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증가

- 뉴질랜드 최대 낙농업체인 폰테라사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수출국들의 금년 유제품 수출 물량이 중국 등의 수요 증가로 늘어났다고 함
- 또한 유럽연합 수출물량은 5월에만 전년대비 6%인 2만 2,000톤이 늘어나 12개월간 12%가 증가한 55만 1,000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품목별로는 전 품목이 늘어나 액상 및 신선 유제품은 27, 치즈는 12, 유청분말은 11%가 늘어 27%가 줄어든 탈지분유만 빼고 품목별로는 전체적으로 1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인 경우 6월 기준 전년 동월에 비해 2%인 약 6,000톤의 수출량이 늘었으며 탈지분유·유당·치즈 등의 무량이 일부 줄었으나 유청분말·전지분유의 물량은 약 1만 6,000톤 증가하여 수출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국의 수입량은 7월 기준 9% 증가하였음. 특히 신선유제품과 치즈 수입량은 37%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이외 아시아 지역의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였음. 신선유제품 및 유청분말은 26, 탈지분유는 수입량이 20%가 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내년에 파종할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내년 봄에 파종할 '16년산 벼 보급종을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 이번에 공급할 벼 보급종은 모두 19품종 20,000톤으로 메벼는 추청·오대·일품·대안 등 17품종 18,900톤이고, 찰벼는 동진찰·백옥찰 2품종 1,100톤이다. 각 도별로는 강원 1,530, 충북 1,200, 충남 3,450, 전북 2,420, 전남 2,350, 경북 4,150, 경남 1,800, 경기 3,100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 금년산 보급종은 수확기 전에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 현상으로 수발아가 발생되어 당초 공급계획량의 약 79%(25.3→20천톤)만 확보되었고, 또한 황금누리 등 일부 품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해 공급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품종별 과부족이 발생되어 부득이 지역별 신청물량 및 품종을 조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따라서 농업경영체는 종자 신청시에 시·군별 보급종 신청 물량과 가능 품종, 품종별 특성과 재배방법 및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문의하면 「정부3.0」 취지에 맞게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또한 정부 보급종은 소독처리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농업경영체가 친환경 재배 등을 목적으로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소독품으로 종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한 종자는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파종기 전에 농가에 공급 예정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총 6종

□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기술' 발간

-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킬레이트제 이용 기술로 염류집적 해소, 비료 사용량 절감, 작물 수량 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난 농가 현장 적용 사례를 담고 있다.
- 이 책은 농업현장의 지도사 또는 농업인이 직접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시설재배지 농가에서 건전한 토양관리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고소애로 만든 환자식 메뉴' 발간

- 이 책에는 △암환자 고단백식사 18종 △암환자 고단백간식 15종 △위장관질환식 5종 △연하곤란식 8종 △케톤식(지방비율을 높은 식단) 3종 △수술 후 환자식 3종 등 총 52종의 메뉴를 담았다.
- 이 메뉴들은 고소애 분말 등을 요리에 섞어 영양소를 보강하고 환자식 메뉴의 다양성을 높이고 먹기 편한 것이 특징이다.

□ '식품성분표, 건강을 부탁해!' 발간

- 이 책은 '만화로 보는 식품성분', '국가표준식품성분 DB 소개', '우리 생활 속의 식품성분 이야기' 등 3주제로 구성돼 있다.



□ '시설 원예작물 뿌리혹선충 종합관리기술'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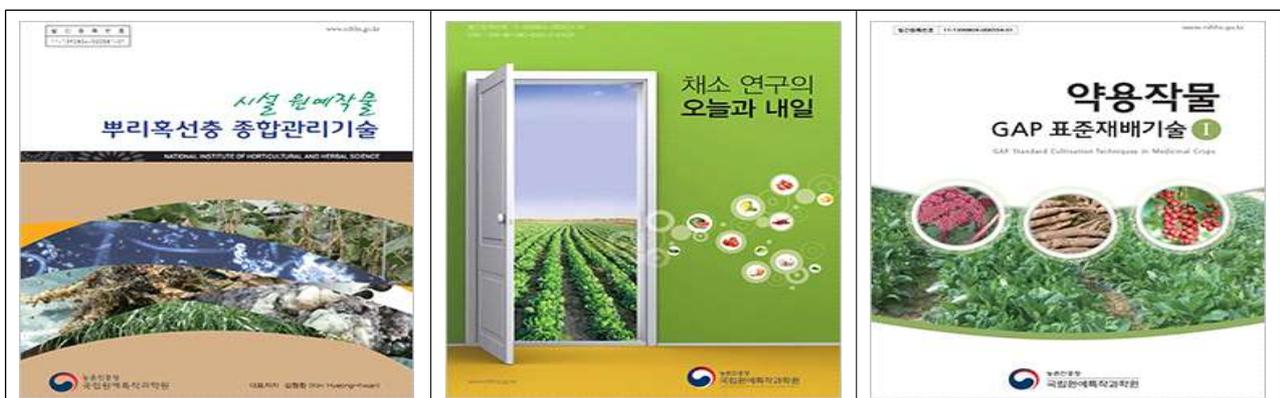
- 이 책은 다양한 뿌리혹선충의 기존 방제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종합해 최적의 모델을 설정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 뿌리혹선충 종류, 피해현황, 기존 관리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관리기술, 부록으로 구성해 뿌리혹선충 관리기술별 특징 및 적용방법 등을 수록했다.

□ '채소 연구의 오늘과 내일' 발간

- 책자에는 수박·호박·참외·멜론·오이·고추·파프리카·토마토·딸기·배추·양배추·상추·무·마늘·양파·파 등 주요 채소 작목별로 생산액과 재배 면적, 종자생산,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 '약용작물 GAP표준재배기술 I' 발간

- 이 책자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 농업기술원 연구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비교적 이용이 많고 수요가 많은 작물 위주로 GAP 표준재배기술을 수록했다.
- 위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 PDF 파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12월 7일 대설(大雪), 한 겨울을 알리는 날

- 소설(小雪)과 동지(冬至) 사이인 대설은 양력으로 12월 7일경부터 시작되며, 중국 화북지방을 기준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이다.
- 이날 눈이 많이 오면 다음해 풍년이 들고 날씨가 푸근해진다는 속신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입동 이후와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이후까지 많은 눈이 내려졌고, 눈이 많이 내리면 보리를 덮어 동해(凍害)가 적어 보리가 풍년을 이루고 잘 자란다는 뜻에서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 농사일을 끝내고 한가해지면 가정에선 누런 콩을 쭈어 메주를 만들기 시작한다. 메주를 잘 만들어야 한 해 반찬의 밑천이 되는 장맛이 제대로 나기에 갖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13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